

신선영(Sun Yung Shin) 문학 연구

유 진 월
(한서대학교)

1. 서론

신선영(Sun Yung Shin)¹⁾은 1974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인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문학상(Asian American Literary Award)의 2008년도 시부문 수상자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자 문학 부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으로 <엠 버터플라이(M. Butterfly)>의 데이비드 헨리 황(David Henry Hwang)이나 <제스처 라이프(Gesture Life)>의 이창래(Chang-Rae Lee)도 수상한 바 있다. 신선영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입양인 여성작가 중에서 <The Language of Blood(피의 언어)>의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와 <Paper Pavilion(종이 전시장)>의 제니퍼 쿼넬(Jenifer Kwon Dobbs)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창작하고 주목받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신선영은 2007년 첫 시집 <Skirt full of black>을 출간했고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내부로부터의 이방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신선영은 책 표지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저자명을 신선영 / Sun Yung Shin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저자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시인은 한국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기 이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피력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자기의 한국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인: 다른 인종간의 입양에 관한 글)>의 공동 편자이며 동화책 <Cooper's Lesson(쿠퍼의 교훈)>의 저자이다. 이 저서들은 한국에서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필자는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주요 입양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신선영에 대한 간략한 언급²⁾을 한 바 있고 이어서 별도의 논문³⁾을 쓰기도 했다.

시집 <검은색으로 가득한 치마(Skirt full of black)>는 이주여성의 생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의 사건들과 목소리들의 거대한 협주라 할 수 있다. 날카로운 정치적 인식과 상상력, 그리고 잊혀지고 기억된 언어의 감각 등이 눈에 띄는 이 시들은 개인적 암시이자 일종의 사회적 비평이기도 하다. 기독교와 불교와 무속, 혹은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 연상된 파편들을 콜라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이 시들은 풍부한 문학적 토양과 열정적인 상상력을 내포한 새로운 수법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다른 문화 체계 속의 한국인 독자에게는 매우 낯설고 난해한 문학 작품으로 존재한다. 한 편의 시는 파편화된 단어들의 나열로 콜라주 되어 있어 완결된 의미를 생성하지 않는다. 문학 작품에서 단어들을 정리하여 의미를 꿰맞추려는 일반적인 시도는 일정한 성과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신선영의 시들은 들뢰즈가 말하는 리즘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단일한 의미나 단일한 주제를 가진 전통적 글쓰기와 달리 단 하나의 의미를 갖지 않고 계속 운동하며 활동하는 것, 즉 모든 지점이 다른 모든 지점과 접속하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분기하며 새로운 방향들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선영의 시를 읽는 것은 마치 불협화음들이 서로서로 쟁그렁거리며 메아리를 울리는 방 안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⁴⁾

본 연구자는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한 바 있으나 이 시집은 매우 난해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전의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Skirt full of Black>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인 시인이라는 신선영의 정체성은 그 글쓰기의 저변에 뿌리 깊게 흐르는 중요한 요소

2) 줄고,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정신문화연구』 117호, 2009.

3) 줄고,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우리문학연구』 29집, 2010.

4) 줄고,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400-401면.

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소재로서 혼종성이나 이민자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화책 <Cooper's Lesson>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신선영이 유아기에 해외로 입양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므로 이 작품에도 그와 관련된 독자적 관점이 들어 있고 시의 해석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kirt full of Black>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의 논의는 필자의 번역을 기반으로 하며 <Cooper's Lesson>은 백민(Min Paek)의 번역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책(bilingual book)이므로 그 번역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II. 본 론

1. 〈Skirt full of black〉

1-1. 콜라주, 타자의 능동적 방법론

신선영의 시에서 행을 따라가면서 의미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편의 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부분과 남의 글에서 인용한 부분이 주석 없이 뒤섞여 있고 시인의 다양한 관심 분야와 독서의 궤적을 모르는 독자로서는 그 문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원래 콜라주는 폴로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술에서 재질이 서로 다른 다양한 재료들을 캔버스에 붙여 독특한 효과를 얻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법인데 문학에까지 응용된 것이다. 이는 탈식민주의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인용과 자기 서사를 교차시키는 이러한 글쓰기는 자기 말에 다른 이의 의견을 가져와 상승 효과를 주기도 하면서 남의 말을 자기 말로 만드는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텍스트는 역사적인 기억과 문학적 상상력과 공간적인 거리가 만들어내는 주술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콜라주의 사용은 소수민족의 고유성 인

식, 국가 안에서의 국제적인 상황 인식,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화에서 얻은 파편의 입체적인 조합은 단일한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다문화주의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출한다. 그것은 언어의 확립된 형태나 고정된 가치관에 대항하는 저항성을 표출한다. 그리하여 책이라는 평면 위에 많은 요소들의 연관성, 이질성, 다양성의 의미화를 초월하는 파열이 이루어질 수⁵⁾ 있다. 신선영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성장하면서 백인 사회에서 황인종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 방문을 하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포기된 아이라는 상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양의 체험으로 고민하는 한편으로 시인은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딸에서 엄마라는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의 혼란스러움은 시집 전반에 걸쳐 의도적인 산만한 방식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로 다른 재질들의 소재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서 어울려서 생산해내는 우연적인 효과라는 콜라주 기법은 다문화를 경험한 타자로서의 시인에게는 필연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식일 수 있다. 미국/한국, 영어/한국어/, 딸/엄마, 서양/동양으로 대비되는 다양성은 한 편의 시 안에서뿐 아니라 나아가 한 권의 시집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밀어내고 서로 융합하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자생력과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다.

신선영이 수상한 Asian American Literary Award는 비단 문학적 성취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학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련의 작가들은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서 겪어왔던 경험과 현재도 겪고 있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한 고유의 정체성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의 아래 묶인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고 소외되고 인종적 타자로서 정의⁶⁾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안에서 오히려 침묵을 깨고 주류 문화의

5) 임옥희, 「트린 민하-타자의 그림자」, 『여/성이론』 9호, 여이연, 2003, 294면.

6) 이정희, 「도널드바솔미의 백설공주 : 콜라주와 다문화주의적 포용성」, 『미국학논집』 33권 1호, 2001, 158면.

관습에 도전하고 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문화가 가진 독특한 요소를 통해 새로운 문화 영역을 창조하고 있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시집에서 1장의 첫 번째 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며 5장은 전체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시의 재재로 삼아 상상력 넘치는 시들을 모은 장이다. 곧 이 시인의 문학 세계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인터뷰에서 시인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관계는 나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의 핵심(essence)’⁸⁾이라고 답하고 있다.

‘MACRO-ALTAIC(거대한 알타이어족)’이라는 첫 번째 시는 아마도 한국어에 관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표현한 시로 보인다. 한국어의 문법을 설명한 구절을 한 문장 따옴표로 인용한 후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사고의 파편들이 나열된다.

“Korean contrasts structurally with European languages such as English in a number of ways.”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어와 같은 유럽어와는 구조적으로 대조된다.”

Your sister's spirit escapes through a pinprick in the paper wall.

The shaman kneels at her side as before a meal.

너의 자매의 영혼은 종이로 된 벽의 비늘 크기만한 구멍을 통해서 날아가버린다.

무당은 식사 전처럼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는다.

Eat the nail clippings of your sister ; assume

her shape. Assume tiger, she-

bear, son of God.

네 자매의 자른 손톱을 먹어라:

그녀의 모습을 가정해보라

호랑이, 암-곰, 신의 아들.

7) 정귀훈, 『데이비드 헨리 황의 작품 읽기』, 한국학술정보, 2007, 69면.

8) TC Daily Planet, August 09, 2008.

Chew with your words closed. 9)

너의 한정된 단어들을 가지고 심사숙고해보라

한국어 문법에 관한 설명 문장, 곳의 한 장면에 대한 묘사, 단군신화에 대한 상상을 연을 바꾸어 나열한 후 자신과 독자에게 chew하기를 권한다. 본고에서는 ‘심사숙고하다’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으로 ‘씹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매우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리얼하게 다가온다. 한가지의 모티프에서 차례로 연상되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에 관해 이렇게 저렇게 ‘씹어보라’는 명령형 문장은 시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열의를 느끼게 한다. 신비스러운 건국신화를 갖지 않은 미국이라는 문명 세계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진실로 배우며 성장한 시인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신화의 세계를 접했을 때의 충격과 당혹감과 신비스러운 느낌은 매우 복잡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곰과 호랑이와 신과 단군이 등장하는 건국신화와 현재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의 장면 등은 시인에게 원시적 생명성과 함께 놀라운 상상력의 원천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여성성을 지닌 곰이 낳은 단군이 세운 나라, 무당이 중요한 종교적 전통인 나라라는 표상은 여성성에 대한 기대나 강조와 연결된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서 무시당하고 또한 그녀가 낳은 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되어 외국으로 강제로 밀려나는 입양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여성의 다층적 위상을 보여주면서 일관성을 갖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서 민족주의와 가부장제가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여성에 대한 심한 왜곡현상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특유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현상을 볼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chew) 한국의 여성과 국가와 사회는 기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사회적 자각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국의 언어/문화가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의 역사/사회는 시인의 입양이라는 현실적 트라우마와 연결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4장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시작된 전쟁과 고아들의 입양 문

9) Sun Yung Shin, <Skirt full of Black>, 11면. 이후로는 면수만 표기함.

제 등을 중심으로 입양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시를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남한은 선진국에 아이들을 공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56면)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새로운 세대

수많은 이러한 아이들은 미국 군인에 의해 태어나고 버려진 미국인과 동양
인의 혼혈 아메리시안이다

10년 혹은 더 뒤에 그들이 베트남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60면)

새롭게 탈식민화한 국가들/국내의/국가간의/국제적인 나라들이 직면한 그
점에 대한 책임은 공유하지 않는다

“대규모의 수출” (60면)

입양아에 의한 제대로 된 명확한 “요구”가

산업화된 세계 안에서 계속 일어났다, 출산율이 낮아졌다

“아이들의 구조적인 공급” (61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미국은 모든 입양의 거의 반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해외입양아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다 (61면) 10)

인용한 위의 시구들은 다양한 생각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장에
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으로 기술된 부분만을 고른 것이다.
이 문장들의 사이에는 단편적인 사고와 인용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서로
충돌하면서 순간적인 인상을 만들어내고 난해한 느낌과 함께 흔들리는 의미
들을 생산해낸다. 입양과 관련하여 시인이 선택한 단어들은 매우 건조하다.
‘아이들의 구조적인 공급’, ‘대규모의 수출’과 같은 단어들은 전쟁을 마치고
급격한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인력과 기술을
공급하던 70년대의 한국사회와 시대적 분위기와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을 담고 있다. 경제부흥만이 최우선 과제로 중요시되고 국민들이 낳은 아이를
최소한 자국에서 기르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물건 수출하듯이 돈을 받고 넘겨
버린 부도덕한 나라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다. 시인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부도덕한

10) 이상은 지면 관계상 영문을 생략하고 필자의 번역만을 인용함.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Where is the man with the face lent
mothers ? Fathers rare: (56면)

어머니들을 빌린 그 남자는 어디 있는가 ?

아버지들은 드물다 :

아이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빌린 아버지들은 이제는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아기들은 경찰서에서 발견되거나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에 대해 토비야스 휘비네트는 ‘해외입양은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권력의 생물정치학적 기술이다. 사회공학과 우생학
이란 이름으로 불륜(사생아), 장애(장애아), 인종(혼혈아)에 낙인을 찍어 불순
하고 폐기할 수 있는 주변인들을 근절하고 청소하는 것’¹¹⁾이라고 항의한다.
man은 단수이고 mothers와 fathers는 복수이다. 이는 ‘아버지’와 ‘그 남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을 빌린 ‘그 얼
굴’의 ‘남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국가다. 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
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어
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어머니들을 이용하고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의무를
방기하고 숨거나 현실을 외면하며 사라져버린다. 어린 아기들은 전혀 다른
인종의 국가에서 다른 문화의 언어를 익히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과 억압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 모든 일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를 애
타게 찾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다. 낯선 곳에 던져진 곳에서 외롭게 ‘건디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 여자의 몸을 통해 임신이 되고 출생하고 버려지고
면 곳으로 밀려나 어려운 성장기를 거치는 전 과정이 ‘소란의 흔적’이라고
암시되고 축약된다.

Elsewhere (Norway, Australia)
another Korean

11) 토비야스 휘비네트 저, 뿌리의집 역,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소나무, 2008, 105면.

National bears the imprint
of my din. (56면)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다른 곳에서
또 한 사람의 한국 국민은
나의 소란의
흔적을 견딘다.

“FRUIT OF ARRIVAL(도착의 결실, 17-18면)‘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여성으로서 자신 또한 출산의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가 되고 더 절실하게 자신의 출생과 입양의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시는 구약성서의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표제로 놓고 그 사이에 자신의 출산 과정을 나열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뒤섞여 있다. 그녀의 시를 읽는 것은 콜라주의 역순으로 읽기 곧 시를 해체하여 다시 퍼즐을 맞추듯 읽는 흥미로운 과정을 통한 독해가 이루어지며 시를 반복해 읽을수록 그 과정이 조금씩 익숙해진다. 다니엘서의 인용부분은 느브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구약에서 그릇된 우상숭배에 관한 경계의 교훈을 주는 부분이다. 당시 왕은 모든 권력의 핵심이며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비록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었다. 시인이 새삼 자신의 출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출산을 통한 어머니 되기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목숨을 걸 정도의 숨막히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식을 버리도록 강요한 왕/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적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다.

출산의 과정에서 시인은 ‘I never sing sweet lullaby, my voice has poor affect.(나는 결코 감미로운 자장가를 부르지 않았고, 나의 목소리는 불쌍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회상한다. ‘This bird that glances off your shoulder. Name it and it will remain, repair its broken wing and it will bear monstrous fruit.(당신의 어깨를 스쳐간 이 새.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부러진 날개를 고쳐주면 기괴한 결실을 낳을 것이다)‘ 시인은 아들을 출산하면서(my son's birth) 비천한 출생(humble birth)을 떠

올린다. 배우자가 함께 하는 아들의 탄생 앞에서 자신의 탄생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결국 시인이 아들을 출생하는 과정은 고스란히 자신의 출생과 겹쳐지면서 축복받지 못하고 내던져진 비참한 인생에 대한 회한 때문에 불쌍한 느낌에 가득 차서 소중한 아들의 탄생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시인은 매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원망을 어머니라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대신 자국의 국민을 무책임하게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냉철한 이성을 보여준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진실을 외면한 무지한 느브갓네살왕처럼 참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The coat of nations slips too easily off some of our shoulders.(국가라는 외투는 우리의 어깨로부터 너무 쉽게 미끄러져 내린다).'
또한 'IMMIGRANT SONG(이민자의 노래, 19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All birds-even those that do not fly
-have wings.
모든 새들은 -비록 날지 못한다 해도
날개가 있다.
(중략)

If this is racial hygiene,
Why do I feel so dirty ?
만일 이것이 인종적 위생학이라면
나는 왜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는 것일까 ?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에 관한 언급은 다시 이 시에서 ‘날지 못하는 새’와 연결된다. 날기에 대한 열망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상을 향해 날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 날아야 하는 새는 부러진 날개와 날지 못하는 새로 표현됨으로써 처음부터 실존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위기 상황과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를 끝없이 그려낸다. clean과 연결되는 아들의 탄생 앞

에서 dirty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 그 갈등은 극대화된다. ‘ECONOMIC MIRACLES(경제적 기적)’라는 시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입양과정을 표현한다.

Legally abandoned
orphan
foster child
eligible for adoption
immigrant
legal resident alien
naturalized citizen
alien registration number A35300104
passing for American-born
passing for Chinese
my maiden name even after marriage (23면)
합법적으로 버려진
고아
양자
입양을 위한 유자격자
이민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
귀화인
외국인 등록번호 A35300104
미국태생으로 받아들여진
중국인으로 받아들여진
결혼 후에도 내 소녀적 이름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들여쓰기 되어 다른 시들보다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부분은 출생 이후부터 외국으로 입양되는 전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시인은 ‘앞으로 주로 재생산 기술과 혁신적인 모성애에 관한 시를 쓸 것이다. 여러 겹의 불이익을 당하는 엄마들의 아이들을 소위 제1세계에 있는 백인 엄

마들에게 보냄으로써 이익을 주는 전세계적인 어린이의 일방적 거래인 입양에 관한 시를 쓸 것이다.¹²⁾라고 말함으로써 입양이 시 창작의 지속적인 과제임을 피력하고 있다.

시인은 오래전 이미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동시에 미국인이자 한국인으로서 미국과 한국,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딸, 과거와 현재라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분법의 쌍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인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성의 자율과 이질성의 충돌이라는 콜라주의 기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화법을 창조해내며 성과를 내고 있다.

1-2.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저항

2장의 일부는 안데르센의 동화 <백조왕자>의 다시 쓰기로 되어 있다. 원작 동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왕비가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다. 마녀인 왕비는 열 한 명의 왕자들을 백조로 만들어 내쫓고 엘리자 공주는 오빠들에게 썩기풀 옷을 만들어 입히면 다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예언을 듣는다. 그러나 옷을 모두 만들 때까지 공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어느날 사냥을 나왔다가 아름다운 엘리자 공주를 본 왕이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 왕비로 삼았지만 아무 말 없이 썩기풀 옷만 만드는 공주는 마녀로 몰리고 화형의 위기에 처한다. 화형당하는 순간 겨우 옷을 다 만들게 되자 왕자들은 사람으로 다시 변하게 되고 다같이 궁으로 돌아가 왕비를 내쫓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

엘리자 공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무려 열 한명이나 되는 왕자들을 구해내고 궁으로 돌아와 마녀를 몰리친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주에게 강요된 희생이 극단적으로 미화되어 있다. 왕비에 의해 궁에서 쫓겨날 때 공주는 겨우 열다섯 살로 되어 있다. 어린 공주에게 장정 열한 명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은 이루기 어려운 고난을 상징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매우 힘겨운 일이다. 깊은 산속에서 서식하는 썩기풀은 양쪽

12) Voice from Gaps, University of Minnesota, 2009.6.24.

으로 날카로운 톱니가 나 있고 췌기털에서는 산이 분비되어 만지면 매우 쓰리다고 한다. 이렇게 거친 풀을 다듬어 실을 잣고 다시 옷을 만든 과정은 여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부과된 문제적 상황이다. 더욱이 옷을 만드는 걸코 짚지 않은 기간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어린/여성을 억압적인 한계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희생과 인내와 헌신은 아름다운 미덕으로만 윤색되고 현실적 고난은 도외시된다.

둘째, 남성들의 극도의 무기력함이 의아하다. 새 왕비가 열두 명의 자식들을 쫓아낼 동안 아버지인 왕은 무엇을 하였는지 동화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열한 명이나 되는 왕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용감하거나 개척적이거나 사려 깊은 사람이 없다. 물론 마법에 걸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 어린 동생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겨놓고 공주가 옷을 다 만든 순간에야 나타나서 옷을 받아 입고 사람이 된다. 화형이 중지되는 것은 공주가 자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누명이 스스로 벗겨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화에서는 마치 오빠들이 돌아와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마녀와 여성성의 문제이다. 문학작품에서 여성은 흔히 마녀와 관련된다. 사악한 새왕비가 마녀인 것은 당연한 설정이고 선한 공주 또한 마녀로 몰려 화형의 위기에 처하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다. 왕비든 공주든 악하든 선하든 여성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넷째, 여성의 경쟁과 질투와 연대의 결여라는 문제이다. 동화에서 여성들은 항상 서로 적대적이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해 혹은 왕이나 왕자로 대표되는 남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여성은 외적인 특성인 미모로 경쟁하고 서로의 미모를 질투하며 사생결단의 상황으로 상대방을 몰아넣는다. 동화 속의 여성들에게 연대감이란 전혀 없다.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이면서도 백인/남성 작가들에 의해 씌어지면서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비판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신선영은 “Flower I, stamen and Pollen(꽃1, 수술과 꽃가루)”에서 <백조 왕자>를 다시 쓰고 있다. 의미를 차례대로 이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고

단어와 문장에서 그때 그때 연상되는 파편적인 단어와 생각들을 콜라주하는 특유의 시창작법을 사용하면서 동화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다.

<백조왕자>와 자신의 삶의 체험을 동일시하여 병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요소로는 첫째, 공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동인으로서의 왕비의 죽음과 자신이 입양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 위기의 시발점으로서 어머니의 죽음을 병치시키는 점이다. 어린 공주가 궁에서의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에서 위험한 세상으로 떠밀리는 것은 시인이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는 경험과 연결된다.

Telling the tale backwards forced me to begin with my mother's death--timely coincidental with my birth,

동화의 뒷얘기를 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어머니의 죽음--내 출생과 같이 일어났던--으로 시작하게끔 한다. (28면)

둘째,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는 머나먼 외국으로 떠밀려 와서 외롭게 유년기를 견뎌야 했던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공주와 자연스럽게 동일시된다. 셋째, 오빠 왕자들과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 썰기풀 옷을 만드는 과중한 일을 완수하는 동안 공주에게 강요되는 침묵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데 이는 모국어를 익히기도 전에 외국어를 배워야 했던 시인에게 강요된 침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But remember, that from the moment you commence your task until it is finished, even should it occupy years of your life, you must not speak. the first word you utter will pierce through the hearts of your brothers like a deadly dagger. Their lives hang upon your tongue...

그러나 기억하라, 네가 너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비록 그것이 네 인생에서 여러 해가 걸릴지라도, 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뱉은 첫 번째 단어는 치명적인 단검처럼 너의 오빠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

이다. 그들의 생명은 너의 혀에 달려있다...

*

*

*

You must not speak. You must not. The first word will
pierce their hearts.

Your last word pierce your own. Seven swords a flame on seven
sorrows.

Son and brothers. A historical inheritance. If only your tongue were
large enough

for all of them, the size of their lives. Their task, this colossal silence.

Flesh, tissue, you gorge throbbing on the works.

너는 말하지 말아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만 한다. 첫 번째 단어는

그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너의 마지막 말은 너 자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일곱 개의 검은 일곱
개의 슬픔 위의 불꽃. 아들과 오빠들. 역사적인 유산. 만일 너의 혀가

충분히 크다면

그들 모두의, 그들의 모든 생명의 크기에 충분할 만큼. 그들의 과업, 이
거대한 침묵.

살, 피부, 너는 그 일을 하면서 게걸스레 삼켜버린다. (32면)

이는 딸보다 아들과 오빠들을 중요시해왔던 역사적인 전통에 대한 저항적 표현이다. 첫 번째 말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그 침묵을 견디어낸다면 마지막 말은 그들이 아닌 자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이것은 희생과 인내의 무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고자 말 침묵의 말을 끝내 참고 견디면서 남자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말 그녀의 희생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표현이다. 결국 그들 모두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침묵을 유지하려면 모든 것을 집어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혀가 필요하다. 이것은 침묵과 인종적 삶의 불가능과 무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침묵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행한 억압의 한 부분이었고 말은 사고와 생각의 표현이며 의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말을 금지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무화시키는 것이다.

비단 이 동화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여성에게는 침묵이 강요되어 왔다. 여성은 말보다는 침묵이 미덕이었고 막상 용기를 내어 말하려고 해도 이주여성으로서의 시인에게 있어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의 말하기는 영어로 말하는 ‘백인/ 미국사회’에서 ‘황인종/ 제3세계 출신/ 입양아 / 여성’이라는 여러 겹의 억압을 받아야 했다. 남성 앞에서 여성이 침묵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서구 사회에서 제3세계 출신의 여성이 침묵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남성이 능동적으로 말하고 여성이 수동적으로 듣는 관계는 서구가 제3세계를 대변하고 지배한다는 제국주의의 지배적 욕망과 연결된다. 결국 침묵에서 벗어나려는 시인의 시도는 중요한 저항의 자세이며 침묵을 강요받은 공주를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유아기에 한국을 떠난 탓에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언어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나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대신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익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시인에게 침묵은 강력한 억압의 요소로 각인되었고 <백조왕자>에서 침묵을 가장 중요한 다시쓰기의 요소로 본 것이다. 또한 왕이 아름다운 공주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의 다시쓰기를 통해 백인사회에서 살아가는 황인종 여성으로서의 고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If you are as good as you are beautiful, I will dress in silk and velvet, I will place a golden crown upon your head, and you shall dwell, and rule, and make your home in my richest castle." and then he lifted her on his horse. She wept.....

"만일 당신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선행기도 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비단과 벨벳으로 된 옷을 입히고 당신 머리에는 금관을 씌우고 나의 부유한 성에 당신의 방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살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소." 라고 말하고나서 그는 그녀를 자기 말에 태웠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

* * *

if (you tantalize me Black am I and beautiful

I (will translate genealogy my pearl my new luminous lexicon

만일 (당신이 나의 애를 태운다면 검고 아름다운)

나는 (혈통을 나의 새로운 빛나는 어휘, 진주로 바꾸겠어요 (34면)

왕이 결혼을 제안한 공주가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라는 통념에 대해 시인은 흑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해 묻는다. 그리고 왕이 제안한 단어의 목록을 나의 어휘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시인은 기존의 어휘를 뒤집어서 새로운 어휘들의 목록을 마련한다. 아름다움과 백인 여성의 등식은 거부되고 시인이 기존의 단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붙이기 곧 명명(Name)은 계속되며 “나는 흑인이지만 예쁘다(I am Black but comely)”(35면)고 외친다. 백인/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유색인종/여성의 언어를 통한 저항이 침묵에의 강요를 넘어서서 이어진다. 인간의 주체성은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교통한다. 언어는 곧 권력¹³⁾인 것이다. 제국의 언어는 피식민자에게 강요되고 피식민자의 역사와 문화는 제국의 담론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관심 곧 가부장 남성의 언어, 제국의 언어에서 모국의 언어로의 지향은 시집의 5장¹⁴⁾에서 치열하게 탐구된다.

2. <Cooper's lesson>

2-1. 혼종성의 갈등과 정체성의 모색

신선영이 가장 먼저 출간한 책은 어린이를 위한 <Cooper's Lesson 쿠퍼의 레슨>으로 입양아 출신 화가인 Kim Cogan이 그림을 그렸다. 한국 아동이 입양될 때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부모들은 한국에서는 성을 앞에 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한국의 성을 이름으로 삼고 자신들의 성을 뒤에

13) 오정화 외, 『이민자 문화를 통해 본 한국문화』, 이화여대출판부, 2007, 25면.

14) 이에 관해서는 줄고,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우리문학연구』 29집, 2010.를 참조.

붙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입양아 중에는 Kim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책의 그림을 그린 Kim Cogan도 그런 경우인 듯하다. 신선영은 자신과 같은 입양아 출신의 화가와 함께 공동 작업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길이라 여겼을 것이다.

주인공 쿠퍼는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half)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쿠퍼에게 엄마는 종종 한국어로 말을 하고 야채 가게의 이씨 아저씨는 쿠퍼가 한국말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친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엄마의 언어인 한국어와의 관계에서 힘겨워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과거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애쓰는 미국 이민자의 힘겨움에 관한 이야기’¹⁵⁾라고 했다. 이 작품은 한국인의 피를 가진 미국인 쿠퍼와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이씨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를 일으킨 작은 사건을 잘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자신들이 입양된 문화에 적응하고 영향을 주면서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그려내기를 원했다. 나는 또한 언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관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기를 원했다. 나는 한 소년이 두 개의 세계 안에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도전-하게 되는지에 관해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한국인 야채상 이씨가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상했다. 나는 정말 쿠퍼와 이씨 간에 생긴 것과 같은 다른 문화 간의 그리고 국제적인 우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아는 데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믿는다.¹⁶⁾

15) Voice from Gaps, University of Minnesota, 2009.6.24.

16) Sun Yung Shin, <Cooper's lesson>, Children's book press, 2004, p. 32. 이후에는 면수만 표기함.

어린 쿠파는 혼혈아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에 처해 있다. 백인 할머니는 쿠파의 얼굴이 갈색brown이라고 말하는 반면 한국인 외할머니는 하얗다white고 말한다. 쿠파는 태권도장의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검은 머리와 황갈색 피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동질감을 느낄 수 없고 자기와 다르다며 혼혈이라 놀리는 백인 사촌과도 친하기 어렵다. 어느 쪽과도 동질감을 가질 수 없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것은 어린 쿠파에게 큰 당혹감을 준다.

이는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야채가게에서 이씨 아저씨에게 쿠파는 말한다. “Why don't you speak English ? (왜 영어로 말해주지 않으시죠 ?)” 언어 문제는 쿠파에게 있어서 세상과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가장 가까운 엄마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야채가게에서의 작은 사건도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피부색 못지않게 언어에 의해 평가되므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교통한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는 곧 권력이기도 하다. 제국의 언어는 피식민자에게 강요되고 피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는 제국의 담론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¹⁷⁾된다. 한국에서 명망 있는 화학자였던 이씨가 미국에서 야채상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언어였다.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게 된 이씨는 이제는 자신이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라고 말하자 쿠파는 혼란에 빠진다.

“But they look at me funny if I say I'm American, even though I am.”(26면)

“하지만 제가 미국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죠. 분명히 저는 미국인인데도 말이죠.“

언어, 외모, 문화 등의 차이는 다른 이상의 우열관계를 형성한다. 미국인 쿠파는 같은 미국인에게는 한국인으로 오해받으며 한국인들로부터는 왜 한국인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느냐는 질책의 대상이 된다. 외모와 언어와 국가와

17) 오정화, 앞의 책, 26면.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혼종의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로서의 소년 쿠퍼는 이씨와의 갈등 해소 과정을 통해서 그 또한 자기와 똑같은 혼란을 겪었음을 알고 동일시의 감정을 통해 소통과 화해로 나아간다. 혼혈아동을 통해 문화간의 갈등을 다룬 신신영은 한국인 입양아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assimilation)와 이문화간의 입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입양과 유년기, 사춘기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큰 고통과 혼란의 요인이었던 해외 입양은 시인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 입양아가 아니더라도 소위 쿠퍼와 같은 2세대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씨와 같은 이민자들 또한 미국 사회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적합한 특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미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문화적 관습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미국이 끈질기게 인종 차별과 배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에서 누리던 지위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를 통해 잘 드러난다. 심지어는 언어의 소통 문제를 야기하는 엄마, 인종 문제를 거론하는 사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가의 할머니들의 발언 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쿠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동화(assimilation)를 넘어 새로운 자아찾기

쿠퍼의 교혼은 야채가게에서 이루어지며 아버지가 아닌 이씨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 쿠퍼가 집에서 나가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백인 아버지는 쿠퍼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인 어머니는 쿠퍼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이야기한다. 이 첫 장면에서 쿠퍼가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소규모 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황인종 어머니와 한국계 미국인 혼혈아 쿠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이 이민족/인종끼리 이루어진 이질적인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문제적 상황 안에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어린 쿠퍼는 이미 인종, 언어, 민족, 문화, 국적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정체

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쿠퍼의 문제는 가정 밖의 한국계 이민자 이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이씨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학자 출신이라는 사실은 비록 현재는 야채상을 하고 있으나 그의 지위가 결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쿠퍼에게 교훈을 주기에는 백인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씨의 전직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무시당하는 한국인의 위상에 대한 진복을 의도하고 있으며 아버지 노릇을 대신 부여함으로써 백인 가족에 대한 은연중의 불신을 드러낸다.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사적인 공간이기는 하나 공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쿠퍼에게 정신적 성숙을 일깨우는 진정한 아버지 역할은 백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 이씨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민자 이씨가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은 동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어니스트 버지스에 의하면 동화란 사람들과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의 기억과 감정과 태도를 획득하고 그들의 기억과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문화적 삶 안에 그들과 통합하는 상호 침투와 융합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동화는 자신을 지우는 부정적 과정이 아니라 공동의 문화적 삶을 만들어내는 긍정적 과정인 것이다. 한편 밀튼 고든은 동화를 문화, 구조, 전쟁, 정체성, 편견, 차별, 시민권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특히 소수집단이 주인 사회의 문화적 패턴들을 받아들이는 문화 변용은 영어나, 의복 같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특징적인 감정적 표현, 핵심 가치, 삶의 목적처럼 내적인 자아 혹은 사적인 자아의 부분까지 확장¹⁸⁾된다고 한다.

“Anyway now I speak both. And now that I'm a citizen, I'm Korean and American, both.”

“이제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기도 하지.” (27면)

18) 김민정, 스파이와 동화, 오정화 외, 앞의 책, 73-75면.

"Sometimes I wish I were just one thing or another. It would be simpler," Cooper said.

“때때로 저는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라고 쿠퍼가 말했다.

"Oh ? You want to be the same as everyone else, like the cans on this shelf, or those rows of frozen fish ?"

“오 그래 ? 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니 ? 마치 선반에 있는 통조림이나 저기 줄지어 있는 냉동생선처럼 말이니 ?” (29면)

과거 자신의 지위를 포함한 한국적인 특성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특히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게 했던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언어에 들어 있는 모든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여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익히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그는 쿠퍼에게 동화의 중요성을 전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완전히 잃고 흡수되는 동화가 아니라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동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주체적 관점을 가르쳐주는 이씨에게서 쿠퍼는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동화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유아기에 입양된 작가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작품은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담과 같이 따뜻하고 교훈적이면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시선을 가득 담고 있다. 입양아에 관한 다른 동화를 준비 중이라는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자신의 입양 체험을 통해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천착하고 있다.

III. 결론

신선영은 유아기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는 아시안 아메리칸 문학계의 중요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이다. 본고에서는 신선영의 대표 시집 <Skirt full of Black>과 동화책 <Cooper's Lesson>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문학세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선영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본고

이전에 두 편의 논문을 쓴 바 있으므로 개관은 생략하였고 여기서는 미국이라는 백인 중심의 세계에서 한국인/여성/입양인/작가라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지위의 이산자아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딛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Skirt full of Black>의 분석에서는 콜라주라는 시적 방법론을 택하고 정전 다시쓰기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한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Cooper's Lesson>의 분석에서는 이문화간의 동화의 관점을 중시하였다.

시인은 미국인이자 한국인으로서 미국과 한국,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딸, 과거와 현재라는 수없이 열거되는 이분법의 항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인의 이러한 노력은 다양성의 자율과 이질성의 충돌이라는 콜라주의 기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화법을 창조해내며 성과를 내고 있다. 콜라주 기법은 다문화를 경험한 타자로서의 시인에게는 필연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식일 수 있다. 또한 시인은 정전 다시쓰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백조왕자>를 침묵과 관련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주여성으로서 그녀의 말하기는 영어로 말하는 ‘백인/ 미국사회’에서 ‘황인종/ 제3세계 출신/ 입양아 / 여성’이라는 여러 겹의 억압을 받아야 했다. 결국 침묵에서 벗어나려는 시인의 시도는 중요한 저항의 자세이며 <백조왕자> 다시쓰기는 침묵을 강요받은 공주를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쿠퍼의 교훈>은 사적인 집이 아닌 야채가게라는 보다 공적인 공간에서, 백인 아버지가 아닌 한국인 이민자 이씨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다.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황인종 어머니와 한국계 미국인 혼혈아 쿠퍼로 이루어진 쿠퍼의 가족은 이민족/인종끼리 이루어진 이질적인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문제적 상황 안에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언어에 들어있는 모든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익히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이씨는 쿠퍼에게 이문화간의 동화의 중요성을 전한다. 그는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동화를 강조한다. 쿠퍼는 그에게서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주체적 관점을 배운다. 이후 신선영 외에도 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입양인 작가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텍스트

Sun Yung Shin, <Skirt full of Black>, Coffee House Press, 2007.

_____, illustrations by Kim Cogan, translation by Miin Paek, <Cooper's Lesson>, Children's Book Press, 2004.

- 참고논저

김민정, 「스파이와 동화」, 오정화 외, 『이민자 문화를 통해 본 한국문화』, 이화여대출판부, 2007, 73면.

오정화, 「딕테 : 한국계 미국이민여성으로서 말하는 여자 되기」, 오정화 외, 앞의 책, 25면.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정신문화연구』 117호, 2009.

_____,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우리문학연구』 29집, 2010. 400-410면.

이정희, 「도널드 비슬미의 백설공주 : 콜라주와 다문화주의적 포용성」, 『미국학논집』 33권 1호, 2001. 158면.

임옥희, 「트린 민하-타자의 그림자」, 『여/성이론』 9호, 여이연, 2003, 294면.

정귀훈, 『데이비드 헨리 황의 작품 읽기』, 한국학술정보, 2007, 69면.

토비아스 휘비네트, 뿌리의집 역,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소나무, 2008, 105면.

Dwight Hobbes, Interview: Korean-American poet Sun Yung Shin, TC Daily Planet, August 09, 2008

Lee Herrick, On and Beyond Korean Adoption, Influence, and Community, Asian American poetry and Writing, Fall 2009.

Voice from Gaps, University of Minnesota, 2009.6.24.

❖ ABSTRACT

A Study on Sun Yung Shin's Literature

Yoo, Jin Wol

Sung Yung Shin was adopted as a Korean infant to an American family. She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writers in Asian American literary fiel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her literature, focusing on *Skirt full of Black* (poetry) and *Cooper's Lesson* (children's book).

Sun Yung Shin uses collage in *Skirt full of Black* as an effective rhetorical device because it can express her experience as an adopted other in the multicultural American society. She rewrites the fairy tale of *Swan Prince* in the viewpoint of silence. For a yellow Asian adopted woman, speaking is suppressed. In the end, the attempt to escape from silence is the writer's resisting activity, and the rewriting of the tale is her questioning in place of the princess.

I analyses *Cooper's Lesson* in the viewpoint of transcultural assimilation. Cooper's lesson is accomplished not by his white father but by a Korean settler, Mr. Lee. Cooper's family is a hybrid composed of white American father, Korean mother, and their half son. So this family has many complicated difficulties, though it's small. Mr. Lee who accepted a new language to establish a new identity teaches Cooper the importance of cultural assimilation, which is not a one-sided integration to dominant culture but an intercultural communion while sustaining each culture's singularity. Cooper learns that he should live in an harmonious and balanced life in a multi-cultural society while keeping his own subjective point of view.

Key Words

신선영, 입양아, 아시안 아메리칸 문학, 콜라주, 동화

Sun Yung Shin, Asian American literature, collage, assimilation, adoptee

논문접수일: 2010. 10. 25.

심사완료일: 2010. 12. 01.

게재확정일: 2010. 12. 10.